中源新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4호 2013년 12월 5일(목)/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전화 043-830-8074 | FAX 043-830-8079 | www.jwu.ac.kr



지면안내

2면 정시박람회/중원대
'다크호스' 기숙형 대학 구축한 중원대
3면 총장 동정
제 5회 한중대학총장포럼 참석
4면 Campus News
중원대 교수, 학술 연구과제 잇달아 선정
5면 Campus News
충북 여성과학기술인 중원대에 모여
6면 Campus News
中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이사장 일행 방문
7면 Campus News
'중소기업 계약학과' 첫 신입생 12명 입학
8면 JWU FRIENDSHIP
美 미네소타주립대와 교류협력 협정 맺어
9면 JWU FRIENDSHIP
세계적 명문대 칭화대와
공동연구소 설립 협약
10면 JWU FRIENDSHIP
중원대-NH농협은행 업무제휴 협약 체결
11면 Student news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지리산 종주 통한 극기훈련
12면 Student news
문준영(신재생에너지 4),
미래장학회 장학생 선발
13면 Student news
중원대 영어학과 두번째 학술제 열어…
14면 JWU WINNER
여자양궁 세계챔피언 배출
15면 JWU WINNER
충북 바이오솔라기능경기대회 최고 성적
16면 Career
중원대 첫 졸업생 송두리(사회복지학과),
공무원 최초 합격
17면 Career
중원대학교 취업설명회
18면 Jungwon Festival
제5회 중원대학교 가을축제
"어울림 한마당" 포토갤러리
20면 Jungwon Festival
FREESTYLE TOWN의 ULTIMA를 만나다.
21면 Career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공모전 발표
22면 Culture
영화 '소원'을 통해 바라본 사회문제
23면 Culture
건강은 스스로 지켜요!

정시박람회/중원대

‘다크호스’ 기숙형 대학 구축한 중원대

정시 가 · 다군 121명 모집 … 친환경 캠퍼스로 수험생 ‘유혹’

중원대(총장 안병환)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가군 71명, 다군 52명으로 모두 123명을 모집한다. 이는 수시 이월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수다. 최종 정시모집 인원은 오는 18일 확정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중원대 홈페이지(http://ipsi.jwu.ac.kr)나 진학사(www.jinhakapply.com), 유웨이(www.uwayapply.com)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 학과는 면접·실기고사를 진행한다. 가군 모집단위의 면접·실기고사는 내년 1월 7일이고, 다군의 면접·실기고사는 내년 1월 28일이다.

입학전형에는 일반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다. 가군 일반전형은 레저스포츠학과와 태권도경호학과, 항공학부(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6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30%와 수능성적 70%를 합산해 선발하며, 서류심사나 면접·실기고사는 모두 없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서류심사 80%와 면접고사 20%를 합산해 레저스포츠학과 2명, 태권도경호학과 1명을 선발한다. 이 두 학과는 실기에 중점을 둔 일반전형 실기중심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배점은 레저스포츠학과(1명)의 경우 학생부 20%·수능성적 30%·실기고사 50%이고, 태권도경호학과는 학생부 20%·실기고사80%다.

다군 역시 43명을 일반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 최근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는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정비학과는 다군 일반전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각각 5명을 선발하며 수능성적 50%와 면접고사 50%를 합산해 선발한다.

다군의 일반전형 ‘실기중심’에서는 예체능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5명), 연극영화학과(3명), 레저스포츠학과(1명)을 선발한다. 학과마다 전형요소별 배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산업디자인학과는 학생부 20%·수능성적 20%·실기고사 60%이고, 연극영화학과는 학생부 10%·수능성적 10%·실기고사 80%다. 레저스포츠학과는 학생부 20%와 수능성적 30%, 실기고사 50%를 합산해 선발한다.

중원대는 선택형 수능에서 학생들에게 각 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모든 전형의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A/B), 수학(A/B), 영어(A/B), 탐구영역(사회/과학) 모두 33.3%씩 반영되며 이중 고득점한 3개 영역의 백분위를 환산해 적용한다. 단, 가산점은 있다. 모든 전형에서 B형 과목을 택했을 경우 5%~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 젊고 우수한 신진 교수진
>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 직업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 신속하게 교육과정에
> 반영하는 유연성과 응용기술
> 중심의 실용교육이 강점

신설 항공학부 내세워 ‘미래로’

중원대는 지난 2009년 개교한 신생대학이다. 개교 당시 의료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한방산업학과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감행했다. 2014학년도에는 새롭게 우주항공분야에 특화해 항공학부를 설립해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신설했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전 아시아나항공 기장인 정윤식 항공운항과 교수를 초빙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비행시간 1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로 크고 작은 비행기 사고에서 언론사의 자문을 도맡은 전문가다.

중원대는 전국 유일의 전교생 레지던스 칼리지를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신 생활관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과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사제동행형 밀착교육의 현장인 셈이다.

국제화 흐름에 맞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학년부터 전공수업을 영어로 수강하도록 학사지도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회화교육을 위해서다.

중원대 측은 “젊고 우수한 신진 교수진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직업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신속하게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유연성과 응용기술 중심의 실용교육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인터뷰] 항공분야 · 신성장동력산업 · 의료보건 3대 성장분야로



▲ 입학처장 한태희 교수 (첨단소재공학과)

-특성화 · 유망학과를 소개한다면.

“2009년도 개교할 때 의료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한방산업학과 등 신 성장 동력산업과 유사한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했다. 2014학년도에는 우주항공분야를 특화해 미래의 하늘을 수놓을 조종사를 배출하는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간호학과를 비롯해 보건계열에서 충북지역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을 증원 받고 있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특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두고 있고 정원 외로 농어촌 학생전형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을 두고서 인성이 바르고 학업의지가 충만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중원대의 강점은.

“전교생 레지던스 칼리지를 구현하고 있다. 최신의 생활관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과 경력을 관리해주는 CMP멘토링(Career Mentoring Professor) 제도를 통해 사제동행형 밀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특화된 영어교육이다.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3학년부터 영어로 개설한 전공을 수강하도록 학사지도 하고 있다.”

합격을 위한 팁을 준다면.

“정시모집에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와 수능이다. 수능에 자신 있는 수험생이라면 가군보다는 다군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총장 동정

제 5회 한중대학총장포럼 참석

중국 대학과의 학생교류 확대 계기 마련



▲ 31일 서울 한국외대 오바마 홀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대학포럼'에서 한국과 중국 대학 총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병환 총장은 8월 31일(토) 오전 9시부터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Obama Hall(오바마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대학 총장 포럼에 참석해 중국 대학과의 상호 학생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32개 한국대학 총장 및 관계자 80여명과 25개 중국대학 총장 및 관계자 70여명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한중 새 시대의 개막과 고등교육협력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중 대학의 협력방안 및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양국 총장들은 '한중 새 시대의 개막과 고등교육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서울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양국 학생교류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럼의 효율적 운용 등이 공동선언의 골자다.

이번 포럼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안병환 총장, 장신썬(Zhang Xinsen) 주한 중국대사, 서거석 총장(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대 총장), 김준영 총장(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성균관대 총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북경대학, 복단대학, 상해교통대학, 중산대학, 길림대학, 중국인민대학, 산동대학, 북경사범대학, 연변대학 총장 및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환 총장은 "한중대학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편집부〉

총장 주요 동정 Photo News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카데미 Konard Hauptfleisch원장 방문



▲ 덴마크 ON-SPORTS TV 인터뷰



▲ 日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권기원 원장 방문



▲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선임관 팀 마샬(Tim Mashall)과 한미 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 방문.

美 국무부 교육문화국 선임관 예방

8월 15일 광복절 오후,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선임관 팀 마샬(Tim Mashall)과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 일행이 본교를 방문해 총장과 환담하였다. 금번 방문은 2010년 부터 매년 본교에서 진행중인 미 국무부가 주관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ship) 프로그램 현장을 확인하고 ETA 예비 원어민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팀마샬 선임관은 안총장과의 환담에서 "중원대학교는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최고의 캠퍼스"라고 평하면서 4년 동안 풀브라이트 ETA 프로그램을 위한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향후 중원대학교와 미국 대학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편집부〉

중원대 교수, 학술 연구과제 잇달아 선정

남상성 교수(자원순환환경공학과),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연구
한방식품산업학과,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보존료의 상품화 연구
염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 한국노인의 낙상 요인 연구


▲ 남상성 교수


▲ 황태영 교수


▲ 김도완 교수


▲ 안정좌 교수


▲ 김현수 교수


▲ 염지혜 교수

중원대학교 교수들이 각종 정부기관 학술 연구과제에 잇달아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원순환환경공학과 남상성 교수는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및 창의적 병영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뢰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과제에 선정되었다. 4개월간의 연구기간에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남교수는 과학기술 전문사관의 개념 정의 및 도입 필요성과 국내외 병역특례 제도와 장교 양성 제도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가칭)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기술 ROTC 타당성과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형 탈피오트*인 이 제도는 대학의 전공교육을 군복무 및 제대 후 취·창업과 연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방식품산업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 충북지역 바이오, 한방식품 부문 과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한방식품산업학과 전 교수가 참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전망이며 연구 책임은 황태영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로 2013년 기준 연간 8천만원, 2년간 총 1억4천8백만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황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천연보존료의 상품화를 연구하게 되며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천연보존료 연구 및 상용화를 통해 지역 소재 식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소스생산 전국 2위인 충북의 관련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며 소비자 신뢰를 높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학과 염지혜 교수도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염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노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보조기구사용,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건강행태 중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수논문지원사업은 적시에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후속 연구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편집부〉

* 이스라엘 군 복무 프로그램으로서 최상위권 고교 졸업생 중 50명을 선발, 공군부대에서 숙식하며 수학 · 물리 · 컴퓨터 교육을 복수 전공하고 군대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 → 제대 후 대부분 유망 벤처사업가로 창업

충북지역 테마클러스터 통합 워크숍 개최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강화와 교류의 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전효균 지사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중원대학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충북지사장 전효균)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충북지역 테마클러스터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효균 충북지사장과 충북 파스너 테마클러스터 회장 신태수 대표, 반도체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 김원용 대표, 신재생전지 미니클러스터(주)이지캠 김태경 전무, 메카트로닉스 미니클러스터 한국교통대학교 황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이외에 5개 테마 참여기관, 충청북도 산단공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충북지역 테마클러스터로 선정된 5개 테마반도체, 신재생(태양광), 바이오, 커패시터(에너지저장산업), 파스너(FASTENER)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선정 테마별 사업설명 및 운영계획을 공유함으로서 산·학·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산단공 충북지사 전효균 지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년도 4개 테마 클러스터가 선정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유관기관 그리고 테마클러스터에 참여한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 충북권에서 더 많은 테마클러스터 과제가 선정돼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가 확고해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발현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환 총장도 "우리대학도 클러스터 회원으로서 앞으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과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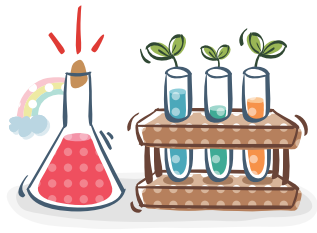
테마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전환과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최소 11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R&D 공모사업이다.

중원대학교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 본부는 2011년에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편집부〉

충북 여성과학기술인 중원대에 모여

'제 1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학술대회' 성황





▲ 10월 18일 중원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 1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중원대학교에서 충북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충북도의 차세대 핵심 전략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충북을 이끌어나갈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충북지역사업단(단장 백성혜) 주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솔라연구센터 등 충북 외 기관의 전문가도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구개발(R&D) 능력의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교육(R&E)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R&D 기획, 기초 융합연구 지원정책, 충북 R&D 사업 발굴 지원계획, 지방과학기술인회 활성화 방안 등 연구개발 기획 분야의 학술논문도 함께 발표됐다.

학술대회와 더불어 중원대학교 의약화학과 박외숙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돼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과학기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분야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교육**(Research & Education)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V21 통신의 무선채널 모델링(한국교통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문철) ▲그래핀 계면층을 적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한국교통대 나노고분자공학과 교수 김성룡)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별광체 개발(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영준) ▲엔진 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한 엔진의 구조 및 성능 이해(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 최준섭) ▲고려홍삼의 남성 생식세포 독성 방어 효과 연구(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생명화학과 교수 김시관) ▲정상음성과 장애음성의 음향학적 특성 비교 연구(중원대 의료공학과 교수 이지연) ▲블루투스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로봇에 관한 연구(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흥석) ▲Soyaponin의 탈과립 억제능(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교수 이광호) ▲현대사회의 결함, 대사증후군 : 그 위험성과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이명선)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Synaptic plasticity and repair(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석헌) ▲생체신호처리기술 - 장애음성(중원대학교 의료공학과 교수 이지연) ▲염증제어를 통한 염증성 질환 치료 신소재 발굴(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교수 이광호) ▲An Efficient Map Representation Technology for Intelligent Robot(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흥석) ▲Electrophysiological evaluation of retial degeneration in rd1 and rd10 mouse model of retinitis pigmrntosa(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구용숙) ▲KBSI의 기초연구 분야 분석장비 플랫폼(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권경훈) ▲High-Throughput Analysis of Protein-Protein Interactions Using Droplet-based Microfluidics(충북대 생화학과 교수 장건익) ▲지역과 대학 특성화에 기반한 IT융합연구센터 선정 사례 소개(한국교통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문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현황 및 전망(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솔라연구센터 연구원 조재억)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기획 발표**

▲국가 R&D 기획((주)메타바이오메드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기술연구소 소장 최종화) ▲기초 융합연구 지원정책(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 · 융합연구단 단장 차은종) ▲충북지역 정부R&D 예산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제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조성호) ▲충북 R&D 사업 발굴 지원계획((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센터 팀장 김윤호) ▲지방과학기술인회 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백성혜)

〈편집부〉

사진촬영 〈최소윤〉

12년 선정 RIS 사업단 워크숍 개최

전국 9개 대학 RIS 사업단장 참석



▲ 중원대학교에서 안병환 총장이 RIS사업단 협의회 워크샵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8월 21일 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도 선정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협의회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첫 날 중원대학교 김도완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의 축사, 대전대학교 김병수 단장의 2012년도 신규 RIS 사업단 협의회 운영방안 발표, 한밭대학교 명태식 사업단장의 RIS 사업단 총괄책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은 2012 RIS사업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중원대를 비롯한 전국 8개 대학(가천대, 남부대, 대전대, 동의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제주국제대, 한밭대) RIS 사업단이 참가했으며 2012년도에 선정된 전국 각 대학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협의회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RIS 사업단장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RIS(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며, 전국 주요 대학교 및 기관을 통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국비와 지자체의 지방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부 사업이다.

〈편집부〉

中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이사장 일행 방문

학생과 교원 및 학술교류 확대로 실질적인 국제화 역량 강화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첫 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딩 시아오준 이사장(첫 줄 왼쪽에서 네번째) 일행이 중원대학교 보직교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China Business College) 딩 시아오준 이사장과 부총장 등 일행 6명이 10월 23일(수) 1박2일의 일정으로 중원대학교를 방문,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교는 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과 교원 학술교류와 양교 한국어학당과 중국어학당 연수 프로그램 설치 등을 협의하였으며, 향후 양교간 상호 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딩 시아오준 이사장 일행은 첫 날 중원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본 후 안병환 총장을 예방하여 양교 교류활성화에 대해 협의하고 체류 마지막날은 레저스포츠학과의 기체조 시범과 태권도경호학과의 태권도 시범을 관람한 후, 괴산 산막이 옛길을 방문했다.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은 중국 광동성 소재 대학으로 총 학생수는 8,000여명으로 11개 외국어 전공외 7개 학원 및 35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교수진 200여명이며 특히 국제 언어 중심대학으로 97%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는 명문대학이다.

중원대와 광동외어외무대학 남국상학원은 지난 2011년 6월 11일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 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편집부〉



▲ 10월 18일 부터 20일까지 중원대학교에서 열린 '제 10회 전국 교수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동의대

중원대에서 열린 '제 10회 전국 교수축구대회' 성료

부산 동의대 우승, 중원대 페어플레이상!

'제 10회 전국 교수축구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원대학교에서 총 25개팀 400여명 출전해 그동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올해 10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중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 교수들의 축구기량과 친선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중원대학교와 괴산의 인지도를 홍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지난 해 우승팀인 동의대가 동주대를 2:0으로 꺾고 2연패를 차지했으며 공동 3위에는 동아대와 남부대가 페어플레이상은 중원대가 응원상은 부천대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괴산군과 지역기관단체의 서포터즈 활동이 돋보였으며 각 대학에서 참가한 교수 축구단에게 괴산의 훈훈한 인심과 '명품대학 중원대학교'를 참가교 임원, 선수들에게 가슴깊이 심어줬다.

〈편집부〉

사진촬영 〈최소윤〉

2013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석사 6명, 학사 9명 총 15명 학위수여



중원대학교는 23일 오후 2시 본교 잉글리쉬홀에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학부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석사 6명, 학사 9명 등 총 15명의 학생들이 각각 학위를 받았다.

안병환 총장은 식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품사학으로서 세계적인 명품대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졸업생 여러분이 중원대학교의 가치를 높이는 첫 '명품 중원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세계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최고경영자과정 5기 수료식 개최





중원대학교는 최고경영자과정 5기 수료식을 21일(수) 오후 3시 프리젠테이션룸에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 김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 기수 회장, 임원, 수료생 가족 및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김도완 평생교육원장의 학사보고와 수료생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안병환 총장의 식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동욱, 이광범씨에게 최우수상을 곽명옥, 김학육씨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3월 시인으로 등단한 심영선(1기, 충청타임즈 기자) 동문과 윤용길(2기, 전 괴산군 의원) 동문에게 시인등단 기념패를 전달했다.

중원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 개설되어 올해 5기에 이르기까지 150여명의 지역 리더를 배출하며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편집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첫 신입생 12명 입학

충북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에 기여



▲ 중원대학교는 9월 30일 오후 7시, 중소기업청 지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사과정 입학식을 거행하고 첫 신입생을 맞이 했다.

중원대학교는 9월 30일 오후 7시 중소기업청 지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사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 및 충북중소기업청 이정화 청장, 참여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대와 충북중기청, 참여기업 8개 산업체 대표와 제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중원대학교 2013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은 융합기계전기전자부품학과에 12명이 입학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통해 설치와 운영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료와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 재료비 등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70% 이내는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체 재직자들은 일하면서 전문학사부터 석사과정까지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에 따라 충북지역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충북지역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산업디자인학과, 첫 졸업전시회 개최

개설이후 3년간 최고의 수상작품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 마련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김성호)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중원대학교 4층 특별전시장에서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 1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첫 졸업전시회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각종 공모전 수상작과 산학프로젝트 결과물 총 35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2010년 학과 개설이후 최초의 졸업전시회라는 점 이외에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년 졸업하는 7명의 학생들은 국제적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많은 수상 성과를 낳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각종 디자인공모전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산업디자인, 편집디자인, 무빙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모든 디자인 분야를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글로벌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첫 인재들이 국내외 각종 디자인공모전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전시회를 주관한 산업디자인학과장 김성호 교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첫 전시회라는 점”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산학연계를 통해 실력을 연마해온 학생들의 미래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후 교내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 1회 졸업전시회’ 개막식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와 각 단과대학장들은 물론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참가해 첫 졸업전시회를 축하해 주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3년간 95개의 수상실적과 총상금 730만원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편집부〉



▲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11월 27일 오후 본관 4층 특별전시장에서 안병환 총장(사진 가운데)과 주요 보직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 1회 졸업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지역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첫 수료생 배출

500시간 교육과정 마친 수료생 85% 취업과 창업 확정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월 8일 오후 본교 CEO룸에서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교육 수료식을 개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월 8일 오후 본교 CEO룸에서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기봉 교수, 괴산군 조지영 경제과장, 중원대 김도완 책임교수, 수료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괴산군 내 식품관련 산업단지 신규조성 및 입주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기업별 현장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되었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과정”과 “유기식품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50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관련 기본 소양교육에서부터 미생물 교육, HACCP 팀장 교육, 발효(전통주)관련 교육, 품질관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를 익혔고, 관내 식품업체(10여곳), 남양유업 등 기업체를 방문해 벤치마킹과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취업알선까지 이루어졌다.

5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19명의 학생 중 1명은 관내업체에 조기 취업되었고 관내 식품업체에 6명이 취업 예정돼 있으며 4명은 창업 준비중이다.

나머지 8명의 수료생에 대해서도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연계 행사를 추진해 올 연말까지 수료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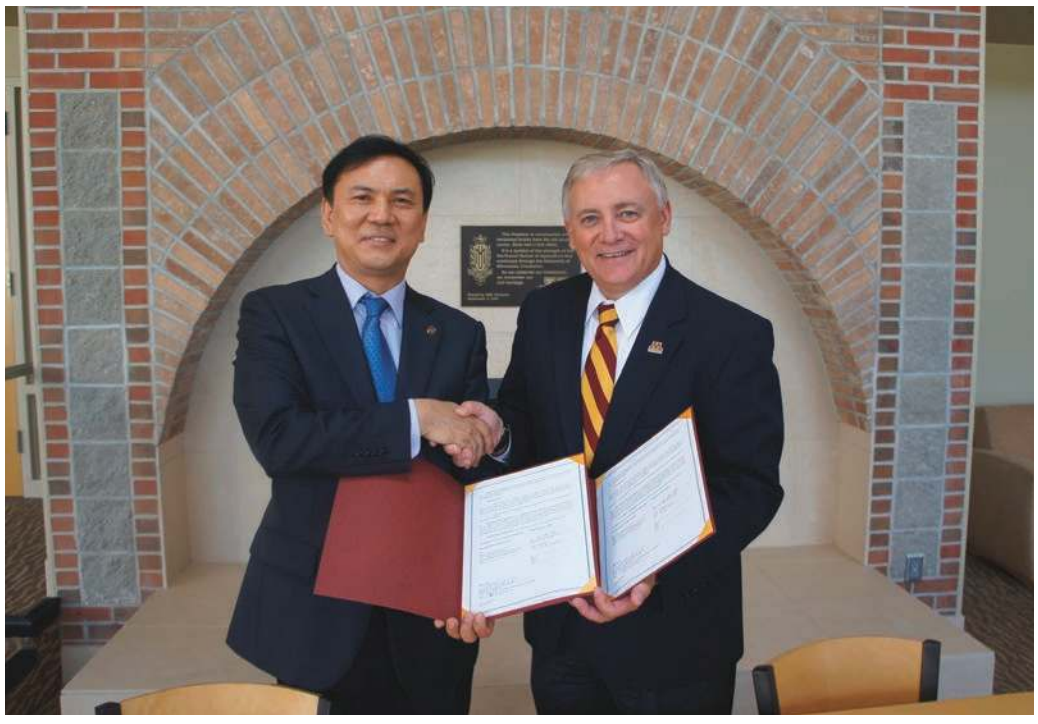
본 과정의 책임교수인 김도완 교수(한방식품바이오학과, 괴산 유기가공식품 육성 사업단장)는 “내년에도 본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대학의 관련 전공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혀 취업에 도움을 주고, 식품산업이 괴산군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집부〉

JWU FRIENDSHIP (Memorandum Of Understanding)

美 미네소타주립대와 교류협력 협정 맺어

공동 학위 및 복수 학위운영, 학점교류, 스포츠교류 예정



▲ 9월 5일(현지시간), 안병환 총장이 미네소타대학 크룩스턴 캠퍼스에서 열린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와의 교류협약식에서 크룩스턴 캠퍼스 프레드 우드 총장과 포괄적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 9월 5일 안병환 총장이 미국을 방문,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와 학생·교수 교류와 학술 교류 등 포괄적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중원대 안병환 총장과 김성호 교무처장, 항공학부 추경승 교수, 미네소타대학 크룩스턴 캠퍼스 프레드 우드(Fred E. Wood)총장, 바바라 카이나스(Barbara Keinath) 교무부총장, 킴벌리 질레트(Kimberly Gillette)국제교류원장 등 두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미네소타대학교와의 교류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교는 1+3, 1+2+1 혹은 2+2 형태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과 학부 및 대학원 학점교류는 물론 교수 및 교직원 교환 프로그램, 학과별 공동 연구 지원 합의, 양 대학 스포츠 교류(친선경기 및 스포츠학생 교환), 어학연수 프로그램(중원대 한국어학당, 미네소타대학 영어 어학연수), ESL 공동 운영을 위한 영어 인증 면제 프로그램, 학과별 국제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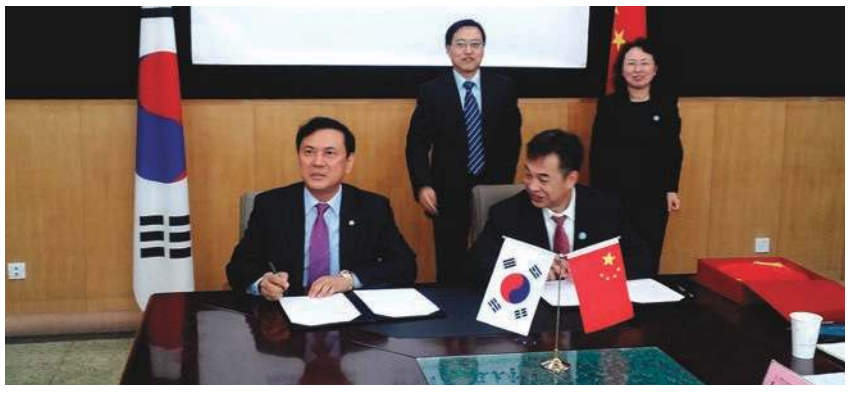
미네소타 대학교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와 주 수도인 세인트폴, 즉 트윈시티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이다. 트윈시티, 덜루스, 모리스, 크룩스톤, 로체스터의 5개 종합대학군으로 이루어진 미네소타 대학교는 미네소타주의 대학 시스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되었다. 미네소타대는 미국 내에서 유서 깊은 주립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5개 캠퍼스 350여개 학과와 전교생 약 6만 7천여명, 전임교원은 3,300여명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미네소타대학교는 28개의 단과대학에 학부에만 150여개의 전공분야를 두고 있는 등 현대의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우수한 영역으로 꼽히는 분야는 의학, 공학, 심리학, 저널리즘, 경영학, 생물학, 건축학, 연극, 무용 등이다.

〈편집부〉

中 북경정보과기대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기계공학, 경제학, 경영학, 방송학의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 기대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왼쪽)과 북경정보과기대 류공웨이 총장(사진 오른쪽)이 국제교류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0월 15일 오후 중국 북경정보과기대학과 학술 및 과학 영역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북경정보과기대 현지에서 안병환 총장과 류공훼이 북경정보과기대 총장이 직접 체결한 이 협정은 양 대학 학생과 교원의 인적 교류, 공동 학술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며 특히 기계공학, 경제학, 경영학, 방송학의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교는 △ 공동연구과제수행과 학술논문교류 △ 상대교가 진행하는 해외에서의 학위과정개설, 세미나, 학술대회 그리고 워크샵에 대한 협조 △ 특정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협력 △ 학생 및 교수교환 △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포함한 기타 형식의 협력 등의 분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경정보과기대는 상경, 문과, 이과, 공과 등의 전공이 갖추어진 종합대학으로 2004년 5월 설립되었다. 총 학생 수 12402명(학부생12000명, 석사생400명), 10개의 학원과 35개의 학과, 720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부〉

中 북경연합대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교직원, 학생 교류는 물론 교육과정 합작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 교류 예정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오른쪽)과 북경연합대 루젠양 총장(사진 왼쪽)이 국제교류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0월 15일 중국 북경연합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북경연합대학교 현지에서 안병환 총장과 루젠양 북경연합대 총장이 직접 체결한 이 협정은 양 대학 학생과 교원의 인적 교류, 공동 학술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며 양교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로 협약했다.

앞으로 양교는 △ 교직원 교류 △ 교재 및 교육관련자료와 전공서적공동편찬 △ 연구, 교육에 관한 출판물 또는 자료의 교환 △ 학술세미나 및 공동연구의 수행 △ 연구나 단기방문을 위해 상호교수 및 연구자파견 △ 학생교류 △ 교육과정의 합작운영 등의 분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경연합대는 지난 1985년 설립되었으며 북경시 최대 규모의 시립대학이다. 3만여명의 재학생과 14개 학원과 59개 학과, 1,000여명의 교수진을 갖춘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다.

〈편집부〉

JWU FRIENDSHIP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세계적 명문대 칭화대와 공동연구소 설립 협약

ADRC(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 자동제어 공동 연구 예정
중원대 캠퍼스내 공동연구소 설립, 국제 자동제어기술 분야 선도적 지위 목표
중원대, 칭화대, 클리브랜드대학 교수로 연구인력 포진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칭화대 열공학 시뮬레이션 제어 연구소 리 동하이 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ADRC 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 자동제어 공동 연구소 설립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0월 16일 오전(중국 현지시간), 세계적 이공계 명문대학인 중국 칭화대학교를 방문해 ADRC(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 자동제어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과 이홍찬 기획정보처장, 송재두 국제교류원장과 중국 칭화대 열공학 시뮬레이션 제어 연구소장인 리 동하이 교수, 북경 징뢰꺼청 교육과학사 췐춘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ADRC 자동제어부문을 선도하고자 중원대학교와 칭화대간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맺게 되었다.

ADRC(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는 사람의 조작 없이 기계가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미국, 일본 우주항공 산업과 신에너지 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양교는 향후 중원대학교 캠퍼스내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ADRC 자동제어부문에 대한 연구를 주임무로 할 예정이다.

또한 ADRC 이론연구를 통해 에너지, 화공, 항공 등의 영역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자동제어기술 분야에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5년간 국제적 수준의 자동제어논문을 10-15편 발표하고 국제 자동제어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칭화대학, 클리브랜드대학, 중원대학의 교수로 이루어지고, 연구소의 보조연구인력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시 중국어 연설로 유명한 칭화대는 '중국의 MIT'로 불리울 정도로 이공계열은 최고의 명문대학이다.

대학 내에 19개의 단과 대학, 47개의 연구소를 포함한 317개의 연구 기구가 있으며, 그 중 24개는 핵심 연구소이다. 66개의 학부 과정, 271개의 석사 과정, 253개의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외 유학생은 약 3,530명이다.

한편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10월 15일, 중국북경연합대학교와 북경정보기술과학대학과도 연이어 교류협약을 맺었으며 최근 중원대는 해외 명문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전망이며 국제적인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

〈편집부〉

몽골국립대 실질적 교류 급물살

교환학생 폭 확대 및 우수 대학원생 교류 방안 논의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가운데)과 아담수렌 오토곤수렌(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몽골국립대학교 마케팅국제통상학과장과 국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중원대와 몽골국립대학 간의 실질적 교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병환 총장은 '아담수렌 오토곤수렌'(Yadamsuren OTGONSUREN) 몽골국립대학교 경제대학 마케팅국제통상학과장과 10월 8일(화) 오전 회담을 갖고 △교수 및 학생교류 확대 시행 방안 △경영대학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 공동진행 △몽골 국립대 교수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교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교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원대학교와 몽골국립대학교는 지난 5월 17일 몽골 현지에서 양교간의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로써 향후 양 대학은 현재 국제통상학과간의 교환학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 학기 부터 영어학과와 경영학과 학생들을 파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원대는 몽골국립대의 우수 대학원생 유치는 물론 전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2명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본교 영어학과에서 수학중이다.

〈편집부〉

Wanted: 7 Full-time English language lecturers

(Native speakers or Koreans) for 2014 spring semester

■ Qualifications
- Native English Speakers with a Master's degree or higher
- Koreans with a Master's degree or higher(majored in English or English Education)
- Native English Speakers with a Bachelor's degree plus TESOL/ESL/TEFL/TESL Certificate or equivalent.
- English or Education major preferred
- Required Age: 25~40

■ Job Description / Field
- Teaching mainly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if any, English related courses in the university
- Teaching hours: 18 hours per week.

■ Working Conditions
- Full-time work(Mon. thru Fri. / AM9:00~PM6:00)
- 1-year contract are renewable with good standing after the year contract
- Health Insurance: 50% paid by the University
- Private Teacher's Pension: obligation charge
- Housing: provides inside Faculty Residence Building
- Airfare : pays at the maximum of 1 million won(if you are overseas)

■ Monthly Pay (depends on work experience or personal career)
- 2.5~3.0 million won per month for 18 hour-teaching per week (There will be an overtime pay for the beyond existing hours.)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in this University with Recent Photo (download)
- Copies of Degree(s) / Transcripts(undergraduates and graduate)/Certificate(s)
- A Copy of a Passport (Picture shown side)
- A Copy of Alien Card (if you are in Korea)
- A Copy of Teaching Certificates (such as TESOL/TESL/TEFL/ESL)
- Copies of Teaching (Employment) Career Certificates

■ Application Period : From 18th Nov. to 31th Dec, 2013

■ Contact (How to apply)
- E-mail : hwj3252@jwu.ac.kr , Phone: 82-43-830-8042, Fax: 82-43-830-8099
- Mailing Address: Academic Affairs of Jungwon University 85 Munmu-ro, Goesan-eup, Goesan-gun, Chungbuk, 367-805, Korea

■ Homepage : http://www.jwu.ac.kr

JWU FRIENDSHIP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중원대-NH농협은행 업무제휴 협약 체결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신현성 NH농협은행 괴산지부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원대학교와 NH 농협은행이 10월 30일(수) 오후 3시 중원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 환경 시스템 개선과 금융거래 운용'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중원대학교는 산학협력단 「SAN-ERP: 연구과제/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마련을 위한 1억원 상당의 투자를 농협에서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 제휴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연구과제, 자금, 예산 및 회계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 R&D 시스템과의 연계 등 산단의 체계적인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농협은 학생들과 중원대학교 구성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제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NH농협은행 괴산군 신현성 지부장, 괴산군지부 최해정 지점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과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 산학협력단 한기봉 단장, 정진화 총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이끈 중원대학교 한기봉 단장은 "NH 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산단의 주요 핵심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돼 교수님과 연구원 나아가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조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NH 농협은행 괴산군 신현성 지부장도 "중원대학교는 우리 괴산지역 경제의 큰 버팀목이다. 앞으로 중원대학교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중원대-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기부 체결

중원대학교는 10월 29일(화) 오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후원을 위한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원대학교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양기관의 보유 시설·인력을 활용한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내 초·중등 교육활동의 유기적 연결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병환 총장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진로와 예술·체육활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초·중학생이 일과 직업을 올바르게 이해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 사진 왼쪽)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필, 사진 오른쪽)이 자유학기제 후원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중원대-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회공헌협약 체결



▲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성영용)가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중원대학교는 10월 23일(수) 오후 중원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성영용)와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원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자원봉사활동, 건전 기부문화 운동, 사랑의 헌혈운동 및 의료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나눔의 참뜻을 드높이고 실천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확산,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운동, 인명구조활동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지리산 종주 통한 극기훈련

10월 17일 부터 2박 3일간 '2013 극기훈련 지리산 종주 프로그램' 가져



▲ 10월 17일 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중원대학교 '2013 극기훈련 지리산 종주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른 새벽 지리산 천왕봉에서 일출을 맞이하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0월 17일 부터 20일까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총학생회, 중원산악회가 함께한 '2013 극기훈련 지리산 종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종주 프로그램에는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체력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대학생으로서 동료애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성삼재 - 노고단 - 임걸령 - 노루목 - 화개재 - 연하천 - 벽소령 - 장터목 - 천왕봉 - 로타리 - 중산리의 코스에서 실시되었다.

지리산 종주를 진행한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는 "자유분방하면서 개성이 강한 신세대 가치관에서 자칫 부족해지기 쉬운 협동심, 동료애 및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고 "종주간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주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종주를 마친 명영호(경찰행정학과 3) 학생은 "추운날씨에 체력적으로는 무척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니 성취감과 희열이 느껴졌다"며, "지리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중원대학교의 학생임과 함께 해준 학우들이 자랑스러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종주를 시작으로 경찰행정학과는 매년 지리산 종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교환학생 환송회 가져

중국, 러시아 3개 대학에 17명 참가



중원대학교는 러시아와 중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할 교환학생 17명을 선발, 8월 26일 잉글리쉬 홀에서 '2013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환송회'를 가졌다.

이번 환송회에는 안병환 총장과 송재두 국제교류원장, 김성호 교학처장과 교환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각 대학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소개, 일정,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시간과 총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교에 10명, 중국 광동외어외무대학교 4명, 러시아 모스코바 리젼 스테이트 인문대학에 3명이 각각 참가 하게된다.

특히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교와 러시아 모스코바 리젼 스테이트 인문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본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6개월 간의 일정으로 현지 대학에서 학점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편집부〉

'참된 인성'을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동아리 '둥굴레'

괴산군 장연면 불우 어르신을 위한 '사랑연탄 나눔봉사' 행사 참가



▲ 중원대학교 봉사동아리 '둥굴레회원들이 괴산군 장연면에서 진행된 '사랑연탄 나눔봉사' 활동을 참가해 독거 어르신집을 방문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중원대학교 봉사동아리 '둥굴레'(회장 전찬민, 사회복지학과 2)가 괴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괴산군 장연면 일대에서 '사랑연탄 나눔봉사' 행사를 함께 했다.

둥굴레회원과 자원봉사학생들은 괴산자원봉사센터회원들과 함께 괴산군 장연면에서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한 불우가정에 연탄 1,200장과 각종 식료품을 직접 배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둥굴레 회장 전찬민 학생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괴산지역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난방이 부족해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연탄 기부 자원봉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중원대 봉사동아리 '둥굴레'는 2011년 만들어져 현재까지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중원대학교 대표 동아리이다.

중원대학교는 '인성을 갖춘 인재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가 된다'는 교육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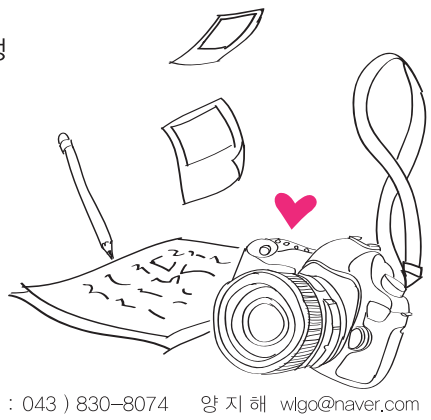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성실하고 열정이 가득한
중원대학교 기자분이 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학교 행사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관심있는 학생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학보 디자인, 공공 디자인 등에 관심있는 학생
영상 촬영 경험이 있거나 편집이 가능한 학생
이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해보세요!!

※ 유지 선발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
생활관 벌점이 없는 자
기타 관련 부서의 기준에 따름

※ 대상
본교 재학생



문의 전화 : 043) 830-8074 양 지 해 wlgo@naver.com

문준영(신재생에너지 4), 미래장학회 장학생 선발

지하수 · 지열분야 발전을 도모를 위한 인재



문준영(신재생에너지학과 4) 학생이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안근묵)가 주관하는 미래장학회 장학생에 선발되어 28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미래장학회 제4회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안근묵 지하수·지열협회 회장과 정장선 지하수·지열협회 고문이자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형수 중원대학교 이공대학장, 장학금 후원사 대표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미래 지하수·지열 인재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하수 이용률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절대적인 비율로 지하수를 통해 식수공급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 중 냉난방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재양성을 통한 지하수·지열분야의 많은 기술개발이 이뤄진다면 전력난 해결에 보탬이 되고 국가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학금 수여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하수·지열협회가 지하수·지열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한 미래장학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문준영 학생 등 총 11명에게 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문준영 학생은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지하수·지열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격려해주신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학업에 정진해 지하수·지열분야 인재로 발돋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하수·지열협회 안근묵 회장은 중원대 학생들에게 "지하수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인재층이 상당히 얇고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지하수 · 지열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고 배출되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회가 설립한 미래장학회가 작게나마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문준영 학생과 중원대 학생들이 사회에서 지하수 · 지열분야에 중요 역할을 해주는 인재들로 성장하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단편 영화제작발표회 및 성공기원 고사



내 미래 주인되기

졸업 후 취업? 대학원 진학? 프리랜서? 아직도 헷갈리신 다구요?
학생상담센터와 함께해요~!

내 진로를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학생상담센터로
MoveMove~~!!

- 진행시간: 화, 목 17:00~18:30(90분간)
  *시간은 참가자와 협의 하여 변동가능
- 대 상: 본교 재학생 중 진로탐색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 모집인원: 8인~10인(선착순)
- 신청방법: 전화신청(043-830-8143,8144),
  방문신청(학생회관 S813호)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 복! 공! 간! 중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중원대 졸업생 박병학, SCI(E) 논문 발표

중원대학교 지열냉난방 시스템 연구, 에코캠퍼스 학술적으로 입증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저널(Journal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등재


박병학 학생

중원대학교 1회 졸업생인 박병학 학생(신재생에너지학과 졸)이 학사논문을 기초한 논문이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 학술지에 등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박병학 학생은 지난 2월 중원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로 진학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저널(Journal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IF:1.239)'에 중원대학교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의 대규모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과 CO2 감소에 검증 연구'의 주저자[2저자: 김형수 교수(중원대), 3저자: 이강근 교수(서울대)]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규모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논문이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2년 동안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에너지 비용을 최소 76.4% 에서 최고 85.3% 까지 절감할 수 있고 CO2 배출량도 398~595톤을 감소시키는 대단한 결과를 검증했다.

또한 경제적 효과도 비교대상에 따라 1.99~3.58과 1.67~3.01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연간 에너지 비용의 1.9배에서 거의 4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이공계 관련 논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 졸업생은 "학부때 부터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형수 교수님과 현재 지도교수님이신 서울대 이강근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중원인으로서 모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부 때부터 박병학 학생을 지도한 김형수 교수는 "4년 내내 기숙사와 강의실, 연구실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는 '노력파' 학생"이라며 "앞으로 기대해도 좋은 인재"라고 평가했다.

〈편집부〉

중원대 영어학과 두번째 학술제 열어…

영어연극, 영어스피치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 중원대학교 영어학과 학생들이 10월 30일 열린 "제 2회 영어학과 학술제"에서 연극 '맘마미아'를 공연하고 있다.

중원대 영어학과가 10월 30일 오후 재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과의 전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 2회 영어학과 학술제'를 개최했다.

영어학과 학생들의 학술제는 다양한 주제의 영어스피치발표와 뮤지컬 맘마미아를 각색한 영어연극, 팝송부르기, 영어 관련 책과 영화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극 맘마미아는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학과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종합무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영어학과의 학술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첫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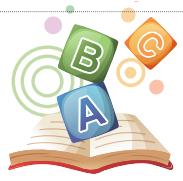
이번 학술제를 이끈 영어학과 임아영(영어학과 대표, 2학년) 학생은 "이제 2번째 학술제라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준 학우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함께한 영어학과 재학생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학술제 참여 학생들과 함께한 영어학과 주정숙 교수는 "학생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와 학업 성취도와 학술적 호기심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영어학과 , '수입전문가(CPI)' 8명 배출

수입업협회 산하 기업 인턴십 및 취업기회 가져



중원대학교 영어학과(학과장 박찬규) 김지현 학생을 포함한 8명이 지난 6월 22일에 실시된 2013년도 공인 수입전문가(Certificate of Professional Importer, CPI)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수입전문가 시험은 한국수입업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수출과 차별화된 수입자의 관점에서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수입전문가는 수입실무자로서는 물론 수입기업의 예비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주며 실제 수입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경험과 현장분위기를 반영한 시험 내용으로 공신력을 인증 받고 있다. 이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수입업관련 기업이나 수입업협회 산하 6,000여개의 기관 및 업체에 인턴쉽 기회 및 취업 시 가산점 부여를 얻게 된다.

〈편집부〉

괴산읍 드림스타트센터와 작업치료학과의

연계와 봉사활동 진행



작업치료학과 1, 2학년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멘토와 멘티의 「작은 사랑 나눔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괴산군 드림스타트 센터가 주관하며 자유의지를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치료학과는 1학기부터 이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왔고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아동들에게 기초학습지원, 정서적 지지, 놀이치료 등으로 지원했다.

각 조의 구성은 1, 2학년을 포함해 5명이며, 10개 조로 진행된다. 각 조는 드림스타트에서 지정해주는 가정집으로 토요일 아침 봉사를 간다.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1학년 이강산은"도시에서 언론매체로만 시골 불우환경 아이들을 접하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보니 그 마음이 더 커졌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 도와주니 보람차고 좋았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했다. 이강산의 멘티(이훈) 또한 이강산에 대해 고마워하며 토요일 마다 집에 방문해주기를 바랬다.

또한 작업치료학과의 봉사부장을 맡아 이번 활동에 진행을 하는 박상범은 "가정집 또는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공부하면서 작업치료학과 전체에게 보람찬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작업치료학과에게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멘토와 멘티의 작은 사랑 나눔 프로그램은 작업치료의 기본정신인 이타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봉사활동이며 작업치료학과는 이 같은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은지 기자, shdms1x@naver.com〉

중원대학교 SNS,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JW UNIVERSIT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ungwonuniv

Twitter
https://twitter.com/JungwonUniv

Me2day
http://me2day.net/paolim

Naver blog
http://blog.naver.com/jwuackr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 중원대학교에서 훈련중인 덴마크 국가대표 재거 마야 학생(사진 가운데)이 10월 2일 터키 벨렉 비치에서 열린 제 2013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후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자양궁 세계챔피언 배출

재거 마야(Jager Maja Buskbjerg, 21세, 한국어학당), 2013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개인전 금메달 획득

중원대학교는 터키 벨렉 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2013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중원대학교 한국어학당 소속 재거 마야(Jager Maja Buskbjerg, 21세) 학생이 여자양궁 세계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현 덴마크 여자양궁 국가대표인 마야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8강과 4강에서 한국대표 기보배(현 세계 1위), 윤옥희(현 세계 2위)를 차례로 꺽고 결승에서 중국의 슈징 선수마저 이겨 세계 양궁계를 놀라게 했다.

한편 단체전에서도 마야의 선전으로 덴마크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마야는 지난 3월 중원대학교 한국어학당 신입생으로 입학해 현재 중급반에 진학중이며 매일 4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한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원대학교 김형탁 교수의 지도아래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중원대는 마야가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덴마크 양궁협회와 협의해 내년 3월 중원대학교 IT계열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하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부〉

박현준(태권도경호 4), 국방부장관기 87Kg '金'

제22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정상 내년 2014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전 참가



▲ 중원대학교 박현준(뒷줄 왼쪽 두번째)학생이 10월 2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4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남대부 87㎏급 결승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중원대학교 태권도부.



박현준 학생(태권도 경호 4)이 제22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4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남대부 87㎏급에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박현준 선수는 대회 마지막날인 10월 2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남대부 87㎏급 결승전에서 김선구(동아대)를 2대 1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백 현지에서 박현준 학생은 "그동안 지도해 주신 태권도경호학과 최천 교수님과 장건필 코치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함께 운동하면서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해준 동기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고 했다.

이로써 박선수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편집부〉

조원상, 참가 전 종목 한국신기록 세우며 5관왕

제 33회 전국 장애인체전 자유형 100, 200, 4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



▲ 중원대학교 조원상 학생(사진 오른쪽)이 10월 4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 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후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조원상 학생(레저스포츠학과 2학년)이 10월 4일 막을 내린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수영 참가 전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5관왕에 등극했다.

조원상 선수는 대회 첫 날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분 76로 첫 금메달을 사냥한 후 2일째 자유형 100m에서도 예선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다관왕을 이어갔다. 다음 날에서 자유형 400m 출전 종전 한국신기록을 깨며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3관왕 기세를 이어가던 조선수는 자유형 400m에서도 한국신기록으로 팀 우승에 기여하고 마지막 날 남자 400m 혼계영 1위로 도착해 5관왕의 대업을 이루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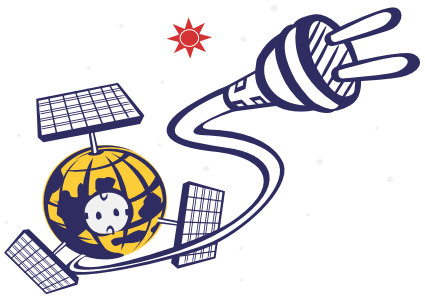
지적장애 2급이지만 비장애인과 겨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남다른 운동능력을 지닌 조원상은 수영은 물론 동계 종목인 '크로스컨트리'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조원상 학생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편집부〉

충북 바이오솔라기능경기대회 최고 성적

안다솔 · 정아름(신재생에너지 3), 태양광 설계 시공 금상!
김소현 · 남동희(신재생에너지 3) · 이보민(첨단소재 3), 태양광모듈 설계 제작 금상!
김효성 · 이민형(신재생에너지 3),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역본부장상 특별상!





▲ 9월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제 1회 충청북도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서 안다솔, 정아름 학생이 충북 경제부지사로 부터 금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제1회 충청북도 바이오·솔라기능경기대회'에서 대학부 전 경기종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충북지역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열린 바이오·솔라기능경기대회는 지난 8월 13일~16일까지 2개분과 11개 직종에 220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가운데 태양광 설계 시공(대학부)에 출전한 안다솔, 정아름(신재생에너지 3학년)학생이 솔라분과 금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태양광모듈 설계제작(대학부)에 출전한 김소현 · 남동희(신재생에너지학과 3학년) 학생과 이보민(첨단소재공학과 3학년) 학생도 솔라분과에서 금상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함께 받았다.

또한 김효성, 이민형(신재생에너지학과 3학년)학생은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역본부장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설계시공 금상을 수상한 안다솔 학생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일치단결하여 함께 힘써 노력한 결과"라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충북도와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큰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2013 충북 '누리캅스' 검색 신고대회 휩쓸어

1위 경찰행정학과 김강연(4년),
3위 경찰행정학과 김은정(3년) 차지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강연(4년, 사진 왼쪽)과 김은정(3년, 사진 오른쪽) 학생이 2013 충북 '누리캅스' 검색 신고대회에서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강연(4년, 사진 왼쪽)과 김은정(3년, 사진 오른쪽) 학생이 지난 10월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한 2013 '누리캅스' 검색 신고대회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사이버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로 경찰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누리캅스의 기본 임무인 검색·신고에 대한 정보공유 등으로 민·경의 발전적인 협업 구축을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편집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

1.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2.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3.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Ⅰ,Ⅱ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2,8,31 교과부발표)
  단, '12~' 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원 기준)이상인 자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Ⅱ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금액	지급률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100%
	1분위*	450만원	100%
	2분위	270만원	60%
	3분위	180만원	40%
	4분위	135만원	30%
	5분위	112,5만원	25%
	6분위	90만원	20%
	7분위	67,5만원	15%
	8분위	67,5만원	15%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사회 속 중원人 I

중원대 첫 졸업생 송두리(사회복지학과), 공무원 최초 합격

학부시절 지도해주신 염지혜, 정명희 교수와 부모님의 믿음과 격려가 큰 힘
"동기, 후배, 그리고 잘 키워준 중원대학교에 부끄럽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



▲ 2013 제 1회 경기도(안성시)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송두리(사회복지학과, 2013년 졸업) 졸업생.

중원대학교 1기 졸업생이 최초로 공무원에 최종합격했다.

주인공은 송두리(사회복지학과, 2013년 졸업) 졸업생. 그녀는 28일 발표된 2013년 제 1회 경기도(안성시)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사회복지 직렬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교수님께서 마음속에 2퍼센트라도 공무원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도전 해보라는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송두리 졸업생은 인터넷 인터뷰에서 합격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사실 합격자발표가 난 후에도 그녀는 합격 소식을 믿지 못했다. 2014년을 바라보고 준비삼아 치른 시험이었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번 안성시 사회복지 직렬 경쟁률은 14대1.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올 2월 졸업 이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송두리 졸업생은 처음엔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몰라 무조건 인터넷강의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꼭 합격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기 저기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송 졸업생은 "무더위가 오던 여름 무렵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슬럼프에 빠지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다"고 하면서 그때 "부모님과 학부시절 교수님이 많은 격려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염지혜 교수와 정명희 교수(사회복지학과)가 "마음속에 2퍼센트라도 공무원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교수님과 부모님들은 한번도 공무원 합격을 의심하신 분이 한분도 안계셨다"면서 "넌 될 거야"라는 믿음과 격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교수님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한편 시험 준비기간을 포함해 6개월만에 합격한 비결중에 하나가 중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우선 배워서 선택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시간을 아낀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학과 교육과정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송두리씨는 후배들에게 "뭐든 도전해 볼 수 있을 때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가 있다면 정보를 많이 얻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합격 팁을 주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하는 송두리 졸업생. 그녀는 "같이 졸업한 동기들 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 친구들과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잘 교육시켜 준 중원대학교에 부끄럽지 않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후배님들이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많으니까 저를 꼭 능가할겁니다"라면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더욱 그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편집부〉

성공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커리어 프론티어 취업 특강

13일 오후, 잉글리쉬 홀에서 진행된 커리어 프론티어 취업특강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양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형진 관장과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형진 관장은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했다. 로자 파크스는 흑인 인권 운동의 불을 붙인 인물이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해방이 됐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득했다. 수도꼭지도 흑인용, 백인용이 나눠져 있었고, 버스에도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나뉘어져 있던 시대였다. 어느 날 로자 파커스가 버스에 타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자리가 채워지고 백인이 서 있게 되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된다. 이를 계기로 마틴 루터킹 목사를 비롯한 흑인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버스기사의 말대로 자리를 비켰더라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이 관장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의지와 자리를 지켜야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3Y : enjoY, whY, trY'

이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3Y를 강조했다.

enjoY : 논어 중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 :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왜'라는 질문을 던진 뒤 사회복지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야 앞선 사람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

trY : try는 한 분의 이야기로 설명했다. 가천길병원 원장을 하고 경원대를 인수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였다. 진료를 위해 청진기를 대면 환자들은 항상 차갑다고 했다. 이를 듣고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빨리 재기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CALLING'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라!

직업에 대한 영어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단어가 나온다. JOB은 돈을 벌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직장을 갖는 뜻이다. VOCATION은 천직으로 자신과 맞는 직업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CALLING은 사명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 다는 것이다.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들은 사회복지를 더욱 선호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력서 작성 전에는 우선적으로 취업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그와 관련된 스펙을 쌓고, 이와 관련되거나 비슷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가 나의 삶과 연관을 지어서 작성한다. 지원하는 기관의 취업 담당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려는지 확인하는 것도 취업 시 좋은 영향을 준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가는 대신 나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지원기관과 자신의 일치성을 고려해 성격, 성장과정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짧은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단 맡겨봐', '단순나열', '논문형', '눈물호소형', '팔방미인형'의 유형은 자기소개서의 실패사례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장은 특강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와 쉽게 들을 수 없던 이야기들을 더욱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취업 특강과 대화 시간을 가진 이윤학 학생(3학년, 09학번)은 "사회복지기관 관장님들이 가진 시선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들의 가이드만 따라가기만 하면 취업 걱정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정은혜 학생(3학년, 11학번)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복지적인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회복지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았다. 오늘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이형진 관장을 초빙한 정명희 교수는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강의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시간을 마무리 했다.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특강이었지만 '3Y'는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원인 모두가 '3Y'를 기억하고 'JOB'이 아닌 'CALLING'을 찾길 바란다.

〈최소윤, jd2326@naver.com〉

〈사진촬영 : 최소윤〉

서류에서 면접까지 … 중원대학교 취업설명회

> 면접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수십 년의 나를 단시간 안에 면접관들에게 보여 주어야하는 순간이다.



중원대학교 취업지원센터는 11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 3시간 씩 재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취업컨설팅 전문가인 최지영을 강사로 초빙 '취업면접 UP 워크숍'을 개최했다.

입사지원서를 요령 있게 작성하는 방법

내가 일하고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본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나를 적절히 연결해야한다. 이후 일목요연하게 이력서에 서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쓰여 진지원서들은 각 기업의 인사 관리팀에 들어가게 되고 평균 5초에서 길면 2분 4초만에 지원서가 인사팀에 의해 걸러지게 된다. 그래서 최지영 강사는 '지원서를 쓸 때는 말하고자하는 핵심 어휘를 제일 앞에 적도록 하세요'라고 전했다.

사진을 선택할 때 또한 이력서 내용만큼 신중하여야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일 잘하는 이미지를 추구한다면 일 잘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선택하되 여성은 사진에 지나친 여성성을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가 면접에서 행해야 할 모습

보통의 면접은 1차 서류면접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보여준다는 자세로 면접에 임해야 한다.

면접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수십 년의 나를 단시간 안에 면접관들에게 보여 주어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면접을 보기 전 면접에서의 당락을 좌우하는 첫인상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가야 한다.

첫인상은 시각적 요소가 청각적 요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면접관에게 일회적이고 신속하며 일방적으로 상상과 연상을 만들어 내어 판단되기 때문에 이 날 참가한 학생들에게 최지영 강사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호감이 가는 자세, 인사법, 제스쳐, 그리고 복장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1분 면접 스피치 및 실제 면접상황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감 있는 면접상황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취업설명회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간다'고 전했다.

〈노은지 shdms1x@naver.com〉



미국 · 호주 · 필리핀 해외교류 프로그램 설명회

11월 6일 저녁7시, 본교 E-hall에서 국제교류원에서 주최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교환학생이나 해외어학연수에 관심이 있는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은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간 북경연합대학, 광동외어외무대학이 내년에도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의 광동외어외무대학 남국상학원, 절강월수외국어대학, 북경정보과학기술대학에 대하여도 간단한 학교설명과 기숙사 그 외의 기타 비용과 자격요건 (HSK 급수 4급 이상 또는 동등한 어학 실력 갖춘 자, IBT (Internet Based TOEFL) 8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학 성적을 제출한 자)에 대해 설명하였다.

러시아 Moscow Region State Institute of Humanities 대학은 현재 3명의 학생들이 교류가 된 상태이다. 러시아에 간 교환학생들이 너무 만족한다며 연장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격요건은 러시아 회화 가능한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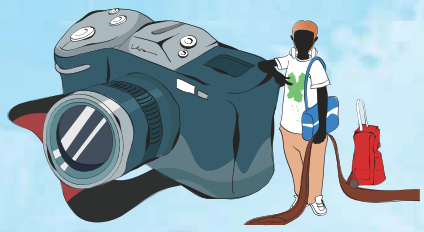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교류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국과 영국, 호주 이다. 현재 University of Minnesota, Western Michigan University, Colorado State University · Pueblo,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England 5개의 대학들과 추진 중이며 파견 예정 시기는 2014년 8월초이다. 영어권 교환학생의 자격(IBT 8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학 성적을 제출한 자)과 이외에도 공통 지원 자격(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1학년부터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성적 미달인 학생의 경우(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생활관 벌점이 없는 자, 평소 타의 모범이 되고 중원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을 충족해야한다.

다음으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연수에는 미국(Western Michigan University), 호주(University of New England), 필리핀(College of Holy Spirit of Tarlac)이 있다. 미국과 호주는 2014년 하계방학이 예정시기이고, 필리핀은 2013년 동계방학에 갈 수 있다. 필리핀(College of Holy Spirit of Tarlac)에 대해서는 박동열선생님과 연수를 갔다 온 재학생이 설명을 도왔다. 학생은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한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필리핀은 갔다 온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며 필리핀연수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원은 "앞으로도 체결에 힘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추후에 설명회나 학교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릴 것이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계획에 대한 공지는 2013년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끝으로 설명회는 끝이 났다. 문의는 국제교류원 (학생회관 305호) 043) 830-8222/8223로 하길 바란다.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제5회 중원대학교 가을축제
"어울림 한마당" 포토갤러리



다함께 베베베베베 춤!!



모두 함께 즐기는 OX퀴즈



가족과 함께 화님을 만들었어요!



헷갈리는 단어들을 확실하게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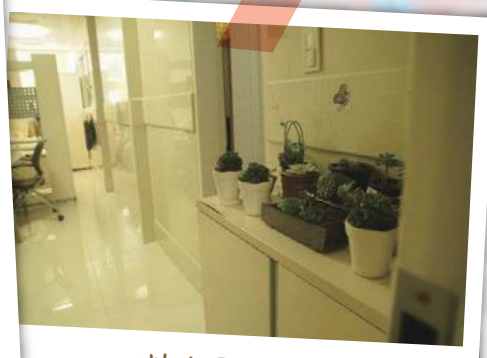
역시 축제의 묘미는 저녁이지~







연기력 최고인 연극영화과 학생들!



이벤트방 콘테스트~



저희가 만든 음식 드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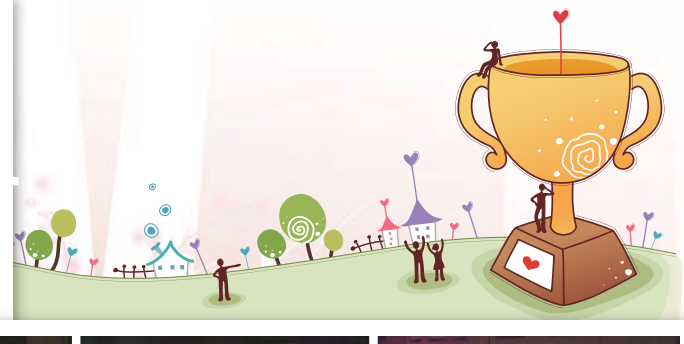
제 손도 잡아주세요!



UCC 상금은 우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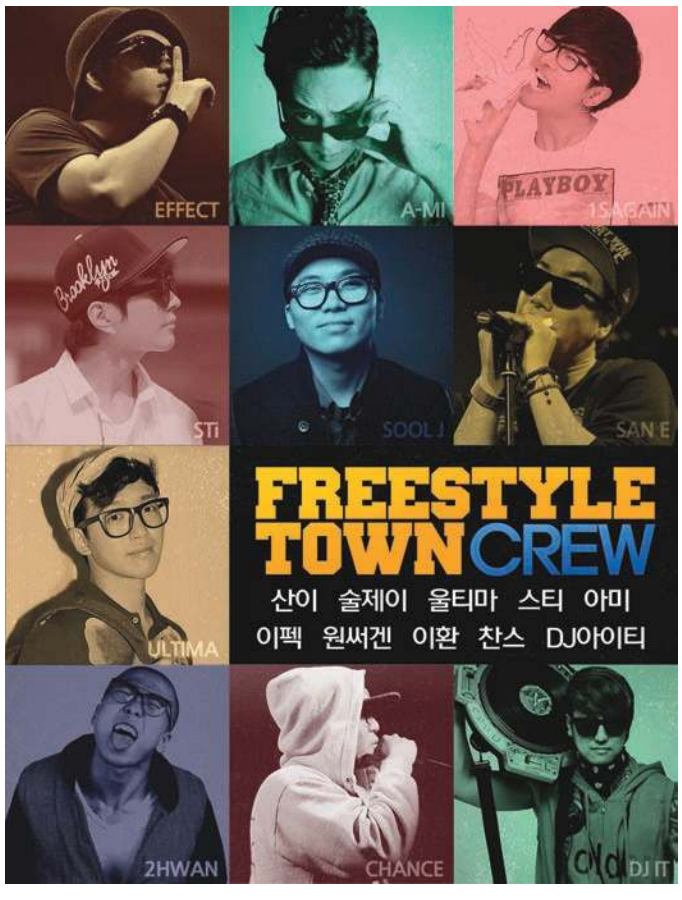








FREESTYLE TOWN의 ULTIMA를 만나다.



지난 10월 한마음 축제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축제 둘째 날을 뜨겁게 달궜던 FREESTYLE TOWN의 CEO, ULTIMA(본명 김다슬)를 만나보았다.

최소윤(최): 힙합에 대해 잘 모른다. FREESTYLE TOWN 역시 이번에 알게 됐다.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울티마(울): 한국 힙합의 중심이다. '프리스타일 타운(FREESTYLE TOWN)'은 2005년 설립되었고 대장 SOOL J형과 CEO인 내가 둘이 만든 프리스타일 랩 문화 단체이다. 지금은 우리가 만든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문화콘텐츠사가 되었고 동명의 크루이기도 하다. 소속가수로는 San E, STI, 원써겐, 아미, 이펙 등이 있다.

최: 학교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분위기를 포함한 중원대학교에 처음 느낌은 어땠나.

울: 우선 건물이나 부지의 스케일에 굉장히 놀랐다. 넓고 크면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이미지였다. 학생들의 분위기는 정말 열정적이었다. 공연을 하는 내내 뜨거운 기운이 많이 느껴져서 공연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었다.

최: 대학 공연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대학교 공연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

울: 공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음향이나 조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음향이다 조명의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좋았다. 공연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편인데 장비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공연장도 많다. 실제로 모 대학에선 장비나 시스템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모니터가 되지 않아서 공연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 학교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축제 규모도 작은 편이지만 다른 대학교 공연과 달리 좋았던 점이 있다면?

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힙합 무대로 축제 공연을 꾸민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다. 힙합만큼 관객과 호흡하는 문화는 없다. 매드크라운과 FREESTYLE TOWN크루를 불러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든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최: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울: 아무래도 FREESTYLE TOWN에는 다른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축제 당일엔 섭외가 되지 않아 함께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산이, 원써겐, 아미, 이펙 등이 있는데 함께 왔더라면 더욱 뜨거운 공연이 됐을 것이다. 축제 당일 나를 포함한 술제이, 스티만으로도 충분히 신나는 무대였지만 보다 많은 멤버들이 함께 했으면 훨씬 신나는 무대와 시너지를 발휘했을 것이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다.

최: 축제 후 재학생들의 팬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안다. 앞으로 울티마를 포함한 FREESTYLE TOWN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가.

울: 나와 FREESTYLE TOWN을 보려면 우선 매년 1회 열리는 대형 공연인 '프리스타일 데이'가 있고,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중형 공연 '앰퍼쇼', 매달 1회 열리는 소형 공연 '박서쇼'를 찾아오면 된다. 전국적으로 대학 축제나 기업 행사로 만나고 있지만 공연장에서 보면 또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검색창에 울티마를 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연 소식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울: 중원대학교 축제가 지난 10월 2일이었는데 아직도 그 뜨거웠던 열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재밌고 신나게 잘 놀다왔다! 함께한 멤버들 역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내년에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전혀 알지 못했던 FREESTYLE TOWN에 대해서 또 ULTIMA라는 힙합가수를 알게 되어서 더욱 뜨거웠던 축제였다. 음악을 즐겨 듣지 않지만 인터뷰에서도 말했듯 관객과 소통하는 힙합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가수가 되길 응원한다.

〈최소윤, jd2326@naver.com〉

작년과 비교한 축제

땀과 노력의 결실인 곡식을 수확하는 10월, 가을에 중원대학교는 1일부터 2일 이틀 동안 제 5회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첫날에는 도전 골든벨, 오엑스 퀴즈대결, 미션달리기, 신발멀리던지기, 생활관 예쁜방 콘테스트, 연극제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교직원 및 학생 상생 친선 축구대회, 장기자랑, 보건특강, 연극제, 부스별 미니게임 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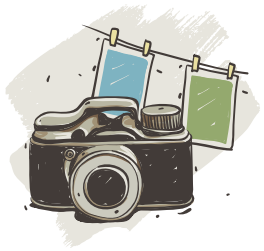
총게임 진행방식은 유사하며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은 축제게임 진행방식을 보였다. 학교진행 행사로는 사진공모전, UCC공모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작년축제와 다른 점은 괴산군, 서부병원, 8개의 외부 업체 음식지원 부스, 그림심리치료 맛보기 등 학생들의 생활과 보건복지에 도움을 주는 많은 외부 업체들의 참여다.

또한 연극영화학과 주관 제 1회 연극제, 작년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수의 가수(매드크라운, 술제이, 울티마, 스티)는 한마당축제를 중원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닌 지역주민이 중원대학교를 참여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주관한 이승현 학생회장은 '축제를 열심히 계획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전했다.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적은 수의 학생참여이며 내년 제 6회 한마음 축제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은지, shdms1x@naver.com〉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공모전 발표

대상 양승원(컴퓨터시스템공학과 2) 의 ‘군례용팝’ 등 12개 작품 선정

중원대학교는 2013학년도 ‘제 5회 중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공모전에서 컴퓨터시스템공학과 2학년 양승원 학생의 ‘군례용팝’이 대상에 선정됐다.

중원대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대학 구성원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중원캠퍼스와 대학생활을 홍보하기 위해 열린 이번 사진전은 지난 9월2일부터 27일까지 본교 전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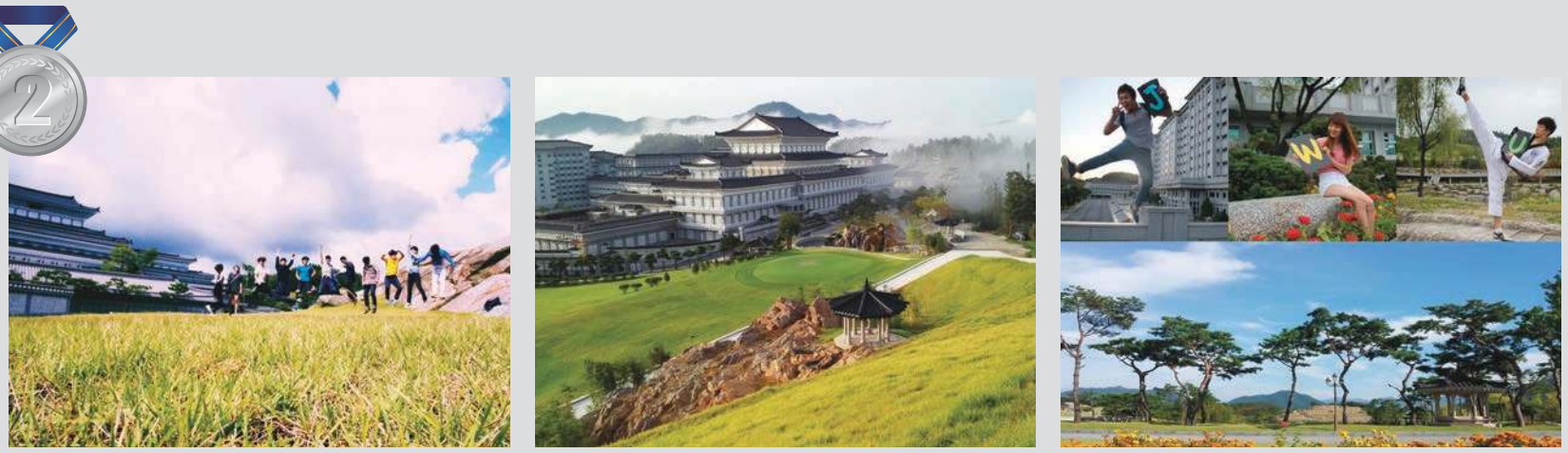
이번 사진공모전은 1차 응모작 적합성을 심사하고 2차 축제기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 700명의 현장투표를 실시해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8점 등 총 12점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최소윤(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꿈’, 신디에반스 교수(교양학부)의 ‘중원의 이른 아침’, 김유찬(첨단소재공학과) 학생의 ‘열정의 13학번 과대들’이 각각 선정 되었고 장려상은 간호학과 장혜주 학생 등 8명이다.

〈편집부〉



2013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공모전 대상 : 군례용팝(양승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열정의13학번 과대들_김유찬_첨단소재공학과

중원의 이른 아침2_신디에반스 교수(교양학부)

최소윤_Dream 사회복지학과



viivid blue green_방지호_연극영화학과

당신에게중원대학교를 선물합니다_안희원(사회복지학과)

연륜_우동석_영극영화학과

중원속에서_유경곤_전산정보팀

청일점.._장혜주_간호학과

칸타빌레_이승근_신재생에너지학과

홍보대사가람

휴_노은지_작업치료학과

영화 '소원'을 통해 바라본 사회문제



▲ 영화 소원의 한장면 (사진출처 : 소원 홈페이지)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개봉한 영화 '소원'.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느 비 오는 아침, 학교를 가던 9살 소녀 소원은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믿고 싶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 이 일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소원이네 가족. 하지만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다."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소원'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슬픈 영화가 아닌 그야말로 가슴 아프도록 착한 영화다. 영화 '소원'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조두순 사건'이 배경이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재판과정이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남을 고통인데 평생을 형무소에 수감되어도 부족한 성폭행 범은 술에 만취되어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받게 된다. 요즘 들어 국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직도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들도 많다. 우리나라 성폭력 사건은 실제 사고 건수의 110배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순결과 정조를 상실했다는 고통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 피해의식으로 술이나 약물 복용, 자살기도를 한다. 23.3%에 이르는 사람들이 임신, 상해, 성병 등의 신체적 피해를 가지고 있고 사생아의 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남성혐오증 그 외에도 결혼의 기회차단이나 제한 등 인간관계가 훼손된다. 공부나 일, 행동 장애 같은 사회적인 장애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에서는 소원이가 다시 등교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아빠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소원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는 사람의 마음이 치유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너그럽게 바라보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소원이 엄마가 소원이가 피해자의 주인공인 것이 소문이 나지 않았으면 했던 이유도, 영화에서 김해숙씨의 딸이 자살을 한 이유도, 성폭력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전부 우리의 미성숙한 선입견 때문이다. 여기서 이준익 감독이 건네는 메시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묘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단지 폭력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조금만 잘 처신했어도 성폭력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보는 비난적 시선과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인간처럼 보는 부정적 선입견을 늘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부정적인 선입관에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를 대신한 피해자다. 우리들은 모두 성숙한 시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희정, aas@naver.com〉



응답하라 2013

2013년에는 어떤 사건사고가??

요즈음 tvN에서 방여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인기이다.
1994년도의 추억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드라마를 즐겨볼 것 이다.
그래서 이번에 1994년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듯이
2013년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아보았다.

Good News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었다. IOC 위원 110명중 95명이 참가한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평창은 과반수를 획득하여 1차 투표에서 당당히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되었다.



박근혜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 18회 대통령 취임식을 하였다. 이 곳에서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내외빈 일반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 여성대통령인 만큼 사람드르이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숭례문 재개장

2008년 방화로 훼손된 '국보 1호' 숭례문이돌아왔다. 5년 3개월간의 복원을 마치고 첫 공개된 숭례문에는 100여 명의 관람객이 밀려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날 관객이 총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지해, wlgo25@nate.com〉

Bad News

아시아나 항공 충돌 사고 발생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 하이옌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가 4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레이테 주 등 44개주 1만 여 곳에서 약 1150만명이 피해를 보고 파손된가옥이 54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의 천문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수질악화 문제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6개 댐에서 목표저수량 대비 9억 3천m^3 의 물이 부족한데도 녹조 완화를 위해 댐 방류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요!

20대가 맞아야하는 예방접종들



21세기는 과거에 비해 의학이 월등히 발전한 시대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질병 예방법 또한 성행한다. 예방접종은 크게 전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투여하는 생백신과 죽어있는 균을 투여하는 사백신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예방접종을 나이에 맞게 투여해야 한다.

서울 삼성병원은 20대 이상 이라면 독감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 B형 간염백신,A형 간염 백신, 홍역백신, 풍진백신, 수두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독감백신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의 고위험군(50세 이상 만성 호흡기, 심혈관, 대사질환자)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독감이 유행하기 2~4개월 전에 맞아야 가장 효과적이므로 10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매년 1회 접종해야 한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은 최근 10년 이내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접종해야 한다.

B형 간염 백신은 항체 음성인 모든 성인, 혈액투석환자나 면역억제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항체 음성인 성인은 0,1,6개월에 걸쳐 3회 접종해야 한다.(혈액투석환자나 면역억제환자는 1년에 한 번씩 항체 역가를 측정하여 10mIU/Ml 미만으로 감소하면 추가 접종을 1회 시행 / 3회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는 3회 추가 접종) A 형간염 백신은 40세 미만 모든 성인 (30~40세는 항체 음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회 접종 (1회 접종 후 6~12개월 후에 한 번 더 접종)해야 한다.

홍역백신은 40대 미만 성인(특히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1회 접종한다. 유행 시 2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풍진백신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1회 투여해야 한다. 홍역백신과 풍진 백신은 홍역-볼거리-풍진 복합 백신이 있으며 이 백신들은 생백신 이므로 임신한 여성(접종 후 최소 4주 피임약)이나 면역억제자는 접종 금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두백신은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의료인, 가임기 여성, 항체검사 후 음성이 나온 면역억제자의 가족을 접종대상으로 하며 4~8주 간격으로 2회 주사를 맞는다. 수두백신 또한 생백신이므로 예방 접종 후 발진이 발생하는 등 약하게 수두를 앓을 수 있으며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임신 여성이나 면역억제환자는 접종 금지하여야 한다.

〈노은지, shdms1x@naver.com〉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심각'



현재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페에서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친구와의 대화에도 스마트폰 사용은 멈추지 않는다. 이는 강의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중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만 열중한다. 강의실에 휴대폰충전기를 꽂아두는 것도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알바천국이 파인드잡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남녀 226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8%가 '현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작년 12월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률이 51%로 조사된 이후 10개월 만에 32.8% 증가한 수치다.

대학생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114.2분(1시간 9분)이고, 스마트폰 검색이 PC 검색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C로 인터넷을 서핑 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서핑 시간이 더 많거나(29.5%), 비슷하다(26.7%)가 56.2%로, PC 서핑 시간이 더 많다(43.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용 패턴에서는 메신저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메신저가 32.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검색이 23.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영상`음악감상(13.5%), SNS활동(11.9%), 게임`오락(9.1%), 메일확인(5.4%), 다양한 유틸리티(3.3%), 기타(1%) 순이었다.

또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보면 대학생 66%는 스마트폰 초기 중독상태, 17%는 스마트폰에 대한 완전한 중독이라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존, 불안, 대인관계 장애 등을 보였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눈의 피로(31%), 근육통(15%), 신경계 장애(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체적인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건강문제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능동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스마트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정희리, hr92@naver.com〉

바람직한 이성교제 법칙

요즘 중원대학교에는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교 들어가면 남자친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도 연애를 해보자!

연애가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의 잘못된 생각부터 수정해보자. 우리는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점부터 볼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모' 부터 볼 것이다. 우리들이 이성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절대로 '외모' 부터 보아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학교를 편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를 편하게 다니는 순간 캠퍼스라이프의 꿈은 서서히 미궁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후줄근해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할 때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것과도 같다. 처음에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꾸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도 좋지 않다. 우리들은 남여 모두 수수하면서 아름다운 것에 끌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언변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멋지고 기품 있는 외모에서 그와 상반되는 저급한 단어나 행동이 나오면 소위말해 '정말 깬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좀처럼 연인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을 사로잡는 방법이 약한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에 자신없어한다. 일하는 상대는 문제없이 말할 수 있는데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친구와 있을 때는 대화가 자연스러운데 이성만 다가오면 긴장하고 말 수가 줄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사소통 장애라고 칭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의사소통장애니까"라고 단정지어버린다면



▲ 영화 내 아내의 모든것 (사진출처 : 내 아내의 모든것 홈페이지)

방법이 없다. 약점도 개성 중 하나라고 보자. 그러나 앞으로 긴 시간들을 생각해본다면 인간끼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가능한 최대화 시켜보는 편이 이롭지 않을까? 특히 이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연애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서투른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당연하다. 연애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대가 여럿인 것 보다 혼자인 쪽이 쉽다. 자신을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존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접해보자.

김희정〈aas@naver.com〉

Always ON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가 됩니다

중원은 올바른 사람을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캠퍼스 곳곳에서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 중원대학교.

'국내 대학 중 인사를 가장 잘 하는 대학교'라는 칭찬이

중원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 입니다.

무엇보다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먼저라 생각하는 중원대학교,

실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께 키워

대한민국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교양인으로 양성합니다.

중원, Always On Human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골프장


박물관


식물원


실내수영장


온천